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6월 27일(금)

하나님! 금요일 이른아침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믿음계승(5) - 차별하여 대하지 맙시다!(약2:1~5)』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날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불의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더욱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항존직으로 피택된 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섬김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립 140주년 (2027년)에는 헌당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1)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 (2)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 (3)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뵈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465장 - 주 믿는 나 남 위해

- (1) 주 믿는 나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 (2)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 (3)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 담당

6/23(월)	6/24(화)	6/25(수)	6/26(목)	6/27(금)	6/28(토)
이준배 안수집사	최병호2 안수집사	조병훈1 안수집사	조승호2 재적안수집사	백운성 안수집사	전해용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윤지옥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88장
기도	백운성 안수집사
성경봉독	야고보서 2장 1~5절
찬양	내 주를 가까이
설교	민음계승(5) 차별하여 대하지 맙시다!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465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약2:1~5 >

-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자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 4)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 참고의 말씀

□ 행10:34~35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 삼상16:7 ...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 골3: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 히13: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들이 있었느니라

□ 마25:40 ...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 마25:34 ...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